

6월항쟁,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한 시대의 희을 그은 6월민주항쟁 -
노태우의 6·29항복은 분명 우리 부산시민이 받아낸 것이었다.

항쟁기간 동안 『국민운동본부』는 시민항쟁의 정신적 구심점이었고 나는 그 중심에서 국민운동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야전사령관 노릇을 했다.

아내 몰래 호주머니를 몽땅 털어 유인물을 만들고 확성기를 사주고 밤을 새워가며 청년들과 내일의 작전을 의논했다. 모두들 수배된 몸이라 잠자리를 어디서 찾아야할지도 모를 청년들과 밤 2~3시에 약수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6월 18일 저녁의 부산시민은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이었다.
나는 시민들과 어깨를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덩실 /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누나
아아 우리의 승리 /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 날 위해

그동안 독재자들의 손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박종철군을 생각하며...

죽음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양심의 결단에 따른 나에게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2·7 박종철군 추도회로 사흘 동안 구속되어 영장이 세 번이나 청구되는가 하면 6월항쟁 때는 항쟁의 지휘자로 주목돼 다시 경찰에 끌려갔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였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대우조선 이석규 노동열사의 정확한 사인규명과 장례·보상문제의 해결에 뛰어든 나는 노동자편에 섰다는 이유로 '장례방해'라는 혐의로 구속되어야 했다.

검찰은 나를 죄인이라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소위 6·29선언 이전에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후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그들이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함께 싸웠던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다.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말하는

사람 사는 세상

1.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민주주의 파괴자들, 민족 반역자들을 결연히 심판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서민을 핍박하는 재벌경제를 해체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을 육성해야 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재벌·부정축재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분배하여 무주택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4.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고한 사람이 정당한 몫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주권을 되찾아 우리 운명은 우리가 꾸려가야 합니다.

약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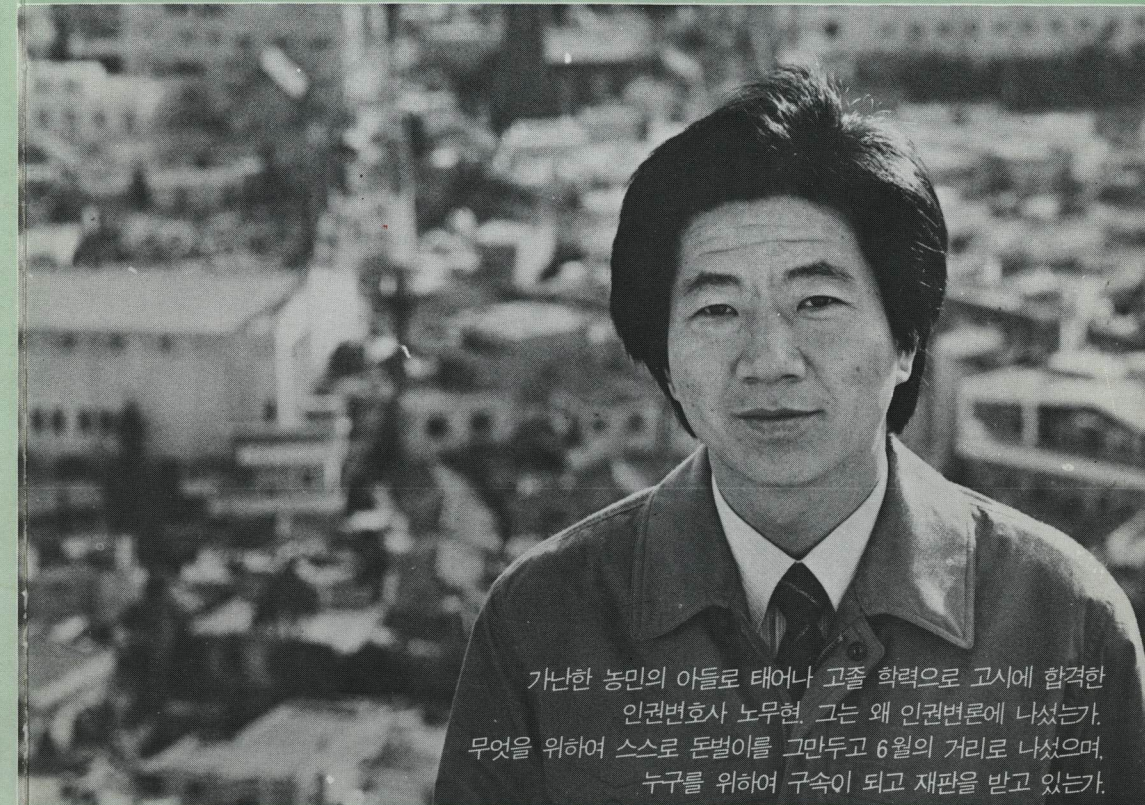
- 경남 진영에서 출생 ('46)
- 부산상고 졸업 ('66)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75)
- 대전지방법원 판사 ('77)
- 부림사건 변론 이후 학생·노동·인권사건 등 변론 ('81 이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발기인 및 상임위원장 ('85)
- 민주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88)
- 고 박종철·이한열 추모대회 집행위원장 ('87)
- 6·10 시민대행진 집행위원장 ('87)
- 대우조선 이석규 노동열사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 ('87)
- 11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 ('87)
- 민주쟁취국민운동 공정선거감시 부산본부장 ('87)
- 노동법률상담소 소장

- 현재 박종철 군 추모대회, 6월항쟁, 대우사건 등과 관련된 5개의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 중.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는 왜 군사독재정권의 피고인이 되었는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졸 학력으로 고시에 합격한
인권변호사 노무현. 그는 왜 인권변론에 나섰다?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돈벌이를 그만두고 6월의 거리로 나섰으며,
누구를 위하여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가.

통일민주당

기 호
2

노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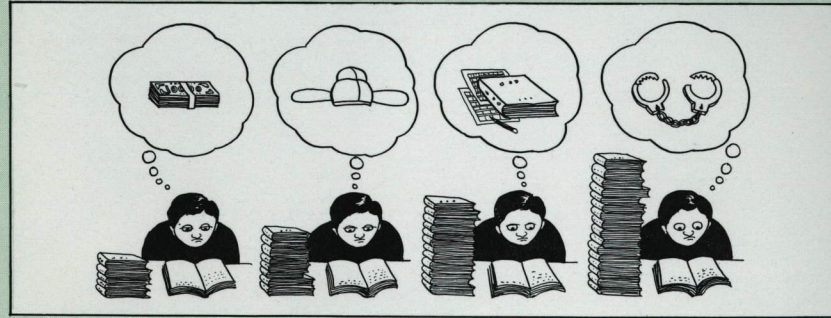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동구) 선거대책본부
전화: 47-3711~2 · 3735~6 (부산일보~KBS 사이)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후원자원봉사대 연락소
전화: 23-5511 · 47-4438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편에 서리라 다짐했던 어린 시절

우리 또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나의 어린시절도 무척이나 가난했다. 한 학급에서 나 혼자만 필통을 사지 못해 누나에게서 물려받은 헌 필통을 새 필통과 바꾸자고 옆자리 친구를 꺾이다 급우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던 일, 사친회비를 못내어 꼬박꼬박 집으로 쫓겨오던 일, 자취·가정교사·회사기숙사를 전전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 중에서도 고 3시절의 어느 늦가을, 잘 곳이 없어 학교교실에서 이들을 자고 밤새껏 얼마나 이를 악물고 떨었던지 이튿날 온종일 이가 아파 밥도 못 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고생과 서러움 속에서 자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다짐하곤 했다. 그리고 악을 써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다.



남이야 죽든말든 나 혼자만 잘 살자던 판사·변호사 시절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다. 알아주는 사람 많고 굶질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살맛나는 생활이었다. 그러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어린시절의 꿈은 차츰 잊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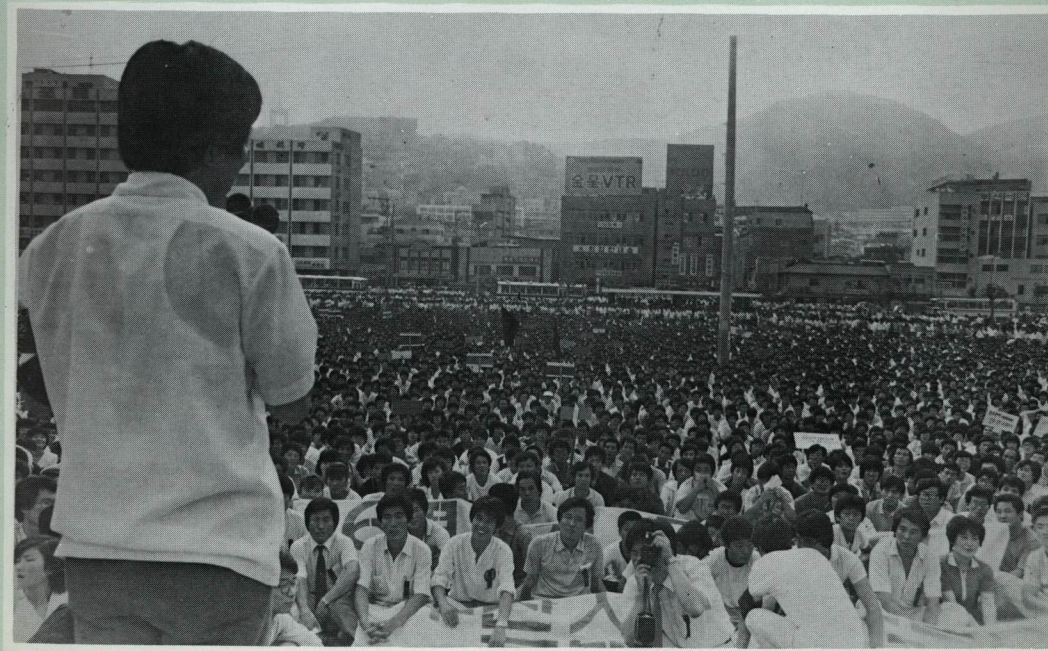
실상 변호사란 직업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못배운 사람에게겐 없느니만 못한 것. 돈 없이는 변호사를 쓸 수가 없고 보니 자연히 변호사는 있는 사람의 편.

나는 눈 딱 감고 이웃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왜 변호사는 돈 있는 사람편만 드느냐?”고 물을라 치면 “세상에 있는 것 치고 돈 있는 사람 편리하게 안되어 있는 게 어디 있더냐”고 무시해 버렸다. 결국 출세를 하고 보니 마음도 달라졌던 것이다.

**내 삶의 전환...
내 양심의 눈을 뜨게 한 사건 - 부림사건**

그 시절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혼한 주장을 방패삼아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내 삶을 온통 뒤바꾸어 놓은 사건을 만났다.

이른바 ‘부림사건’의 변론 —
81년, 출범한 지 한 둘을 맞은 제 5공화국 정권이 부산지역의 양심적인 청년 학생들을 몽땅 잡아다 온갖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5년, 7년씩 감옥에 넣어버린 사건이었다. 매를 얼마나 맞았던지 온 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청년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채 57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아들을 찾아 산성 골짜기로, 영도다리 밑으로 미친듯이 헤매고 다닌 어머니들 —. 누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는가?



지난해 7월 9일 부산역 광장에서 거행된 고 이한열 열사 추모집회에서 독재정권의 진학상을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변호사.

고뇌와 갈등... 그리고 결단

부림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청년들을 자주 만났다. 그들은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들의 피맛을 짜먹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고문으로 이들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을 미워했다.

그때부터 나는 학생사건·노동사건의 무료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사회의 이면 곳곳에 널려 있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가 고작이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리란 꿈도, 조그만 집 한 채의 꿈도 가져볼 수 없는 사람들 — 그 어디를 가도 사람대접 해주는 곳 없는 천대꾸러기를. 그러나 그 반대쪽에선 수백억을 해먹고도 외국을 들락날락하면서 거들먹거리는 한줌밖에 안되는 군상들.

물건대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어린시절의 고통과 울분이 되살아났다. 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리란 결심 앞에서, 언제 어디로 끌려가 병신이 될지, 언제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조그만 농장이나 별장을 갖고 싶었던 염치없는 꿈도 자식만은 외국까지 유학을 보내 고등학교밖에 못나온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보겠다던 희망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

85년 봄부터 부산의 재야양심세력은 일치단결하여 『부산민주시민협의회』를 결성,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을 본격화하였다. 나는 그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고 그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후부터 학원안정법 파동, 2·12총선, 개헌현판식,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2·7추도회, 3·3평화대행진, 4·13호헌 반대, 이어 장엄한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나는 강연·집회·시위·상담·변론에 진력했다.

『부민협』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들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한편 민주화운동에 좀더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86년 9월엔 사건수임을 중단하고 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위원장에 취임, 6월의 전국적인 민주항쟁에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갔다.